

## 전문인이 되자

이제 우리나라도 GNP가 4,000 달러에 접근하고 있으며 앞으로 십여년 후에는 선진국으로의 진입이 가능할 것이고, 사회의 모든 영역을 전문인이 지배하는 테크노크라트 사회가 될 것이다.

한 인간의 일생에서 직업은 생계의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자아실현의 방법으로서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정된 기간동안의 직장생활을 어떻게 가치있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한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없는 일은 아닐 것이다.

앞으로의 사회는 과거와는 달리 빠른 속도로 발전되어 갈 것이며, 특히 각종 기술분야에는 전문인이 더욱 절실히 요청되고 전문인만이 각광받는 시대에 살아가게 될 것이다.

요즘 웬만한 큰 건물이나 공장에 가보면 방재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지식수준이 예전에 비하여 상당히 향상되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산업의 발전속도에 따라가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여 변화없이 지내는 동안 그들은 새로운 방재정보를 신속히 소화하여 관련 전문지식을 꾸준히 축적해 왔다는 반증인 것이다.

우리는 최소한 자기가 맡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만이라도 이 세상 어느 누구 보다는 잘 아는 전문인이 되겠다는 집념이 약한 것 같다. 담당하고 있는 방재분야에 관해서는 구조, 작동원리, 설계 등 나 만큼 아는 사람이 세상에는 없다고 할 정도의 전문인이 되겠다는 집념이 부족한 것 같다.

우리들은 다같이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다. 투수가 방어율이 나빠지면, 타자가 안타를 치지 못하여 팀에 공헌도가 낮아지면 상품가치를 상실하게 되어 결국은 축출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프로의 세계는 냉철한 것이며 꾸준한 실력향상을 위한 노력과 자기 성찰이 없으면 낙오하게 되는 것이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로 맡은 바 업무에 꾸준히 연구 정진하면 새로운 지식의 습득과 축적속에 생활의 기쁨을 누리고 직장생활의 가치도 배가될 것이며, 반대로 직장생활을 생계의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보내는 상태가 될 때 일에 대한 의욕이 상실되며 삶에 대한 의미조차 잃고 자칫 좌절의 수렁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하고 있는 일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버릇이 있는 것 같다. 재해방지를 위한 우리의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재론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

산업발전에 비례하여 재해현상도 복잡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으며 꾸준한 연구노력이 없으면 효과적인 방재활동이 어려운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나 자신의 보람있는 삶을 위하여,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특히 방재분야에 종사하는 우리들은 담당분야의 전문인이 되겠다는 각오로 분투 노력하여 보다 알찬 직장생활을 영위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